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

2017년 9월 15일

제 27 호

• 발행인 : 임국희 • 편집장 : 황인우
• 주소 : 0799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5층 3호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아나운서클럽 E-mail annaclub7@naver.com ☎ 010-4278-0450, 070-7501-3842

아나운서클럽엔 이렇게 뜻깊은 잔치가 많아요

9월 정례 모임 황우겸, 전영우 고문 회고록 출판 축하연 겸해 열려

3분기 모임은 존경과 사랑이 어우러진 뜻깊은 자리였다.

(사)한국아나운서클럽 정례 모임 겸 황우겸, 전영우 고문 출판 축하연이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6일 저녁 여의도 열반에서 열렸다.

황우겸 고문은 배우자를 황망하게 떠나보낸 슬픔을 딛고, 사부곡 思婦曲과 그간의 어록, 평생 열정을 쏟았던 JC 이야기를 부록으로 엮은 <늦철들어 이 뭣고?>를 펴냈다. 전영우 고문은 작년 회흔례를 대신해 자전적 회상기이자 한국 화법 교육의 체계화 과정을 알 수 있는 <화법에 대하여>(소명출판)를 펴냈다.

임국희(전 MBC) 회장은 “예전엔 9월이면 어김없이 ‘Come September’가 울렸는데, 이젠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이젠 잘못된 모든 게 나아질 거야’란 가사처럼, 오늘 모임이 성황을 이루니 다 잘 될 것 같아

희망이 솟는다. 고문님들이 해놓으신 것 있으시니 우리도 뭉쳐서 잘 나갑시다.”라며 인사말을 전했다.

박민정(전 MBC) 사무총장은 “우중雨中에도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방송국 파업 중에도 시간을 내준



(뒷줄 왼쪽부터 지그재그로) 전찬희 김규홍 황태수 전영임 최화숙 남궁미 황인우 이현우 윤계중 정연호 김선경 박영웅 김상준 황명기 원종배 신오식 박찬훈 여경호 이형균 조석영 이계진 차인태 이후재 정영희 윤희자 정홍숙 성선경 김규은 민병연 이혜옥 조길자 김은영 박민정 문복순 윤영중 황우겸 임택근 전영우 한영섭 강영숙 임국희 박중세 배덕환 맹관영 황서경 황도경

KBS 성기영 실장 등 현역과 두 분 고문님 가족, JC 회원과 함께하니 더 기쁘다. 고문님들이 책을 내신 것이 참 대단한 일이라 축하연을 겸해 마련했다.”라며, 오늘의 주인공 황우겸·전영우(전 KBS) 고문에 꽃바구니를 증정했다.

파업 관련 회의 때문에 바빠 자리를 떠야 할 KBS 팀들에게 먼저 마이크가 주어졌다. 신임 성기영 실장은 “8월 1일 발령받았는데, 노조가 9월 4일부터 파업에 돌입해 가뜩이나 부족한 제가 더 힘들다. 어쨌거나 더 잘 되도록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라며 모두의 건강을 기원했다.

원석현 부장이 중후한 저음으로 황우겸 고문의 시 ‘이 뭣고?’를 낭송했고, 한상권 부장은 “후배들은 선배님들 뒷모습 보며 자란다. 선배님들의 길, 조심스럽게 따라가겠다.”라고 말했다.

2면에 계속

아나운서클럽 시청자미디어재단 MOU 체결

미디어 교육, 방송 진행 강사 대상 교육, 아나운서스쿨 개설 사업 등에 참여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아나운서클럽 임국희 회장과 시청자미디어재단 김상근(전 KBS) 이사장은 9월 6일 오후 5시 여의도 열반에서 황우겸 고문, 차인태(전 MBC), 김규홍·박찬숙(전 KBS) 부회장, 김상준(전 KBS) 감사, 박민정 사무총장, 맹관영(전 KBS) 회원과 이혜옥(전 KBS) 운영위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협약식을 열고, 미디어 교육과 시청자 방송 참여권 확대를 위해 서

(사)한국아나운서클럽이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아나운서클럽의 전문성을 미디어 교육에 활용하기

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2면 하단에 관련 사진> 앞으로 양 기관은 일선 학교 미디어 교육 강사 파견, 화법과 방송 진행 강사 대상 교육, 일반인 대상 아나운서스쿨 개설,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자문, 공동 참여 등의 방법을 찾게 된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미디어에 대한 교육과 체험 홍보, 시청자 제작 방송 프로그램 지원, 각종 방송 제작 설비 이용 지원, 시청자의 참여 활성화와 공정한 방송 시청권 보장을 목표로 2015년 설립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공공 기관으로서 부산, 광주, 강원, 대전, 인천, 서울, 울산 등 7개 지역에 최신 방송 장비를 갖춘 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현우(전 MBC) 회원이 서울센터(센터장 장영희)의 의뢰로 9월 11일 오후 1시부터 열린 경기도 연천중학교 자유학기제 수업의 아나운서 체험강의에 참여했다.

아나운서연합회 집행부와 오찬

임국희 회장 초청, 하반기 운영 등 업무 협의



임국희 회장이 6월 20일 열반에서 클럽과 아나운서연합회(회장 염용석) 집행부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김규홍 부회장, 박민정 사무총장, 황인우(전 KBS) 편집장, SBS아나운서협회 이병희 회장, KBS아나운서협회 윤인구 회장, 최원정 부회장, 이광용 사무국장이 함께한 자리에서 연합회 염용석(SBS) 회장은 <아나운서저널> 발행과 12월 15일 조선호텔에서 열리는 아나운서대상 시상식 등 하반기 운영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KBS아나운서협회는 인구보건복지협회와 6월 30일 ‘가족 친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가족의 가치를 다룬 방송 제작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위진록 회원, 대통령 주최 위로연서 6.25 발발 뉴스 육성 재연

국가보훈처 특별 초청



6·25 발발과 9.28 서울 수복 뉴스를 처음 전한 재미교포 위진록 회원이 국가보훈처의 특별 초청으로 미국의 6.25 참전 용사 및 가족 등 80여 명과 함께 방한訪韓했다.

공식 일정은 6월 23일 문재인 대통령 주최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감사 위로연, 24일 판문점과 국립서울현충원, 25일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6.25 67주년 기념식과 전쟁기념관, 26일 한국 문화 탐방과 국가보훈처장이 주관하는 감사 만찬 등으로 5박 6일간 펼쳐졌다.

올해 90세로 최고령 아나운서인 위 회원은 6월 23일 위로연 무대에서 1950년 6월 25일 오전 6시 30분에 방송한 6.25 발발 뉴스를 육성으로 재현한 후 ‘그때 한 달이면 돌아온다면 한국을 떠난 사람이 전쟁 탓으로 67년간 타국에서 살게 되었다’는 인생 역정도 피력하여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위진록 회원은 “그날 연회장 1번 테이블에는 대통령

부처가 한미 유공자 대표 두 사람의 가족과 같이 앉았고, 2번 테이블에는 나를 중심으로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합참의장, 경호실장, 국가안보실장 등이 앉아 있었다. 이날 나는 아나운서 70년의 큰 상을 탄 기분이었다.”라고 회고했다.

그 후 6월 29일 KBS 아나운서실 방문에 이어 6월 30일과 7월 9일 아나운서클럽 회원을 비롯해 도쿄 유엔군총사령부(VUNC)에서 잠시 같이 일했던 노라노 여사 만남, 다큐멘터리 촬영 등으로 바쁘게 보내고 7월 14일 출국했다.

1947년 입사해 1948년 5·10 선거 방송, 1949년 백범 김구 선생 장례식 실황 중계를 담당했던 위진록 회원은 1950년 6·25와 9·28 서울수복 제1보 방송을 한 그 해 11월 일본에 파견되어 22년간 유엔군총사령부의 대북방송을 담당했다. 1972년 미국으로 이민, 재미방송인협회 고문, 가주加州예술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로스앤젤레스(LA)에서 거주하며 수필가,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KBS-CCTV 공동제작<임진왜란 1592>

제44회 한국방송대상 대상 수상



KBS <임진왜란 1592> 5부작이 올해 최고의 방송 프로그램으로 뽑혔다.

한국방송협회(회장 KBS 고대영 사장) 주최로 시행하는 제 44회 한국방송대상에서 KBS-CCTV 한중공동제작 <임진왜란 1592> 5부작을 비롯해 23개 부문 24편이 작품상 수상작으로, 21명이 개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다큐멘터리 대본의 사실을 극대화하기 위해 드라마 촬영 기법과 연출 방식을 응용한 ‘팩츄얼 드라마(factual drama)’ 형식을 도입한 <임진왜란 1592>는 철저한 고증과 흡인력 높은 스토리텔링, 스펙터클한 영상미를 보여준 호평을 받았다.

3면에 계속

다음엔 12월 15일(금) 오후 7시 조선호텔 <2017한국아나운서대회>에서 만나요

정례 모임 시모저모



출판 축하연은 외빈 소개, 약력 소개, 헌정 시 암송, 꽃다발 증정, 축사, 헌정 삼행시 낭송, 케이크 자르기, 건배사, 특별 제작 모자 증정, 경품 추첨, 가족 대표 인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박민정 사무총장은 "서울JC특우회 김선경 회장을 비롯해 윤계중, 박찬훈, 신오식, 황명기 역대 회장 대표, 한국방송인동우회 한영섭 회장, 황 고문님 차남 태수 씨 가족과 큰 손녀, 전 고문님 사모님 최순철 여사와 큰 딸 내외 등 외빈들까지 오셔서 알찬 자리 만들어주셔서 고맙다. 동영상과 사진을 찍어 멋진 기록물을 만들어주시는 춘하추동방송 이장준 대표님과 KBS사우회 김광일 부회장님께 감사 드린다."라고 인사했다.

먼저 김상준 감사의 두 분 고문의 약력 소개에 이어 정홍숙 회원이 "황우겸 고문님의 시가 너무 슬퍼 잘 안 외워졌다."라며, '나의 지팡이'를 암송했다. '우거진 가로수 따라 걸으며 행여나 넘어질까 혹시나 다칠세라 손목 잡고 다리가 되어주던 나의 님 나의 지팡이 나의 길 잡이 님과 함께하던 길을 이제 나 혼자 쓸쓸이 절룩거리며 걷는다 (중략) 그러나 나의 지팡이는 내일도 이곳으로 나를 안내할 것이다 인생을 되짚는 추억의 길 걷는 강과 행복 다지던 님의 향취 있는 길이니 그 길을 씩씩하게 걸으라고 꽃과 새가 나를 응원하리라'

서울JC특우회 역대 회장단 윤계중 대표가 'JC의 역사'인 황우겸 고문에게 꽃다발을 증정했고, (사)방우회 한영섭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오랜 친구 두 분의 출판기념회에 와서 아나운서클럽의 선배 사랑의 뜨거운 정에 감동을 받는다. 나는 저자에게 책을 받을 때마다 그 노고를 알기에 절을 하며 받는다. 앞으로 건강히 지내시며 좋은 일 많이 누리시기 바란다."라고 축원했다.

차인태 부회장은 축사에서 "동산고 야구인, 아나운서, JC인으로서 걸어온 황우겸 고문님이 귀한 말씀 주셨다. '오늘은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라고. 그리고 40년 전 전 선배님이 동아방송 실장이실 때 '차 형!'이라 부르며 '식사 한번 하자'고 전화를 주시고는 짜장면을 사주시며, '언제까지나 절차탁마하며 배워야 한다'고 하셨다. 화법의 이론을 정립하고 뿌리내리게 한 분, 후배들도 본받자."라고 말했다.

국제펜클럽 특별위원인 이후재(전 KBS) 회원은 두

두 원로의 회고록



고문의 성함으로 "황혼의 지평선 향해 지팡이 흔들며 우리 아나운서들아, 모국어를 길러다오 겸애兼愛한 외침은 흥련 되어 번어간다. 전 생애를 스피치 사랑에 쏟아 영원히 뻗어나갈 모국어에 향기 뿌리며 우리말 아나운서의 셋별로 뿔다."라는 삼행시를 낭송했다.

시 '이 뿔고?'에서 '이제야 알았네 님의 고마움을 인기 있는 직업 가졌다고 철없이 난 척하고 다닌 나를 눈회초리 한 번 주지 않았지! (중략) 이제야 알았네 온화한 마음으로 성냄을 이기고 진실로서 거짓을 이기라고! 이제야 알았네 착한 일로 악을 이기고 베푸는 일로 인색함을 이기라고!'라고 토로한 황우겸 고문은 "마누라 잃고 목도 가버렸다. 작년 가을에 미수연 치렀는데 연말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원망스럽고 그리운 마음에 시상이 떠올라 글을 쓰게 되었다. 이런 자리 마련해준 후배들에게 고맙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라고 말했다.

전영우 고문은 "강원도 원주 최 약국 딸과 무등 타듯 결혼한 지 60년, 작년에 회혼례 대신 일생을 돌아보는 의미로 <화법에 대하여>를 펴냈다. 전에 내가 발음사전을 내겠다고 하자 스승인 조운제 박사가 번역을 먼저 하라 권유해 <화설의 지식> 권말 부록으로 '국어 발음 소고'를 냈다. 그렇게 '스피치'를 공부하다 '예절'을 다루게 됐고 '철학'으로 이어졌다. 지금도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번역 중이다. 남은 건 책밖에 없다. 잠 안 올 때 내 책의 머리말을 읽으며 용기를 얻는다."라고 답했다.

박중세(전 KBS) 고문은 "선배님들이 작년에 미수연, 회혼례를 지냈으니 기쁘면서, 한편 언제 이리 나이 먹었나 섭섭하고 착잡하다. 두 분은 내가 1958년 입사해 1998년 <국방뉴스>까지 40년간 방송할 때 늘 음으로, 양으로 응원해주셨다. 앞으로 116세 다수茶壽까지 지내며 언제나 좋은 자리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건배했다.

성선경(전 DBS) 부회장은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 운영 중인 동천 모자에서 특별히 제작한 이니셜을 새긴 헌팅캡을 증정해 한층 분위기를 훈훈하게 했다.



작년 MBC 신사옥 견학 때 황 고문을 휠체어에 태워 '호위무사'처럼 편안히 모신 인연으로 파업, 농성 중에 달려온 김대호(MBC) 아나운서는 "황우겸 고문님의 책 속에 나의 대한 글이 담겨 있어 더욱 기쁘다. 선배님들 모습 잊지 않고 지내겠다."라고 말했다.

황우겸 고문과 동기인 임택근 고문은 "황 형하고 1951년 아나운서 시작해 참 재미있게 놀았다. 건강한 모습으로 백수까지 같이 삼시다."라고 말했고, 강영숙 고문은 "아나운서클럽이 최고의 지성인 단체가 됐다. 후배들이 세계 속에 우뚝 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권장수·주건국(전 KBS) 회원은 전주에서 올라왔고, 원로 목사인 주 회원의 소개로 처음 참석한 여수의 박승호(전 KBS) 회원은 "우리는 소리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목회 활동 전에 잠깐 몸담았기에 올 자격이 없다고 사양했지만, 아름다운 목소리가 모인 곳이 있다고 해서 왔다."라며 인사했다.

김은영(CBS) 부장은 "요즘 방송가 상황 보며 더 좋은 방송이 되길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좋은 음악, 바른 뉴스 전하는 CBS 성원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문복순(전 KBS) 회원은 "노인네 흰머리는 면류관, 주름살은 훈장이라 했다. 생애를 정리하신 책을 내신 선배님들 자랑스럽다. '9988'하게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라고 축원했다.

이계진(전 KBS) 부회장은 "40권 가까이 책을 쓰신 전 고문님, 미수에 다섯 번째 책을 내신 황 고문님, 정말 존경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황우겸 고문 차남인 도예가 황태수 씨가 가족 대표 인사 후 축하연 참석자들을 위한 경품으로 도자기를 제공해 10명이 당첨의 기쁨을 안았다.

전 고문의 만사위 여경호 씨는 "제가 학교에 근무했는데 아버님 화법 책을 교과서로 썼다. 아버님은 늘 아나운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셨다. 아나운서들 한꺼번에 보니 영광스럽다."라고 인사했다.

폐회사에서 "감사하고 감사하다. 아나운서클럽의 앞날을 위해서 만세삼창으로 끝내자."라는 임국희 회장의 제안에, 박영웅(전 KBS) 회원이 "이렇게 훌륭한, 역사적인 출판에 해주셨다는 것 축하하며, 모두 다음 기획에 뵈기를 기원한다."라며 만세삼창을 선창했다.



전영우 고문의 부인 최순철 여사가 인사드립니다 | 성선경 부회장이 두 고문의 이니셜을 새긴 모자 선물 | KBS 한상권 부장, 성기영 실장, 원석현 부장 축하 인사 | 서울JC특우회 축하사절단과 황 고문 가족



방우회 한영섭 회장 | 임택근 고문 | 박중세 고문 | 차인태 부회장 | 김상준 감사 | 정홍숙 회원 | 이후재 회원 | 춘하추동방송 이장준 | 황 고문 차남 황태수 | 전주 주건국 회원 | 여수 박승호 회원 | 차기정 회원



KBS사우회 김광일 부회장과 송현식, 임화숙 회원 | 조석영, 이현우, 정연호 회원 | 박경희, 박영웅, 전주의 권장수 회원 | ▶아나운서클럽과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상생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54회 '방송의 날' 특집

칼럼

품위, 그건 아나운서의 핵심 가치

황유성(전 DBS, 수필가)

아나운서는 전파 미디어의 얼굴이다. 뉴스를 전달하며 교양·오락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는 등 방송사가 제작 송출하는 프로그램 대부분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타고난 목소리에 방송 언어를 매끄럽게 구사하는 아나운서야말로 지성과 양식을 갖춘 전문 직업인이라는 평가에 예외가 없다. 매체가 어떤 것이든. 때와 곳이 어떻게 다르든, 오디언스들로부터 뜨거운 박수와 환호의 갈채를 받는 이유일 터다.

‘훌륭한 아나운서’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일본 NHK 방송이 펴낸 《아나운서 독본》은 서슴없이 이렇게 정의한다. “목소리만 들어도 팬스레 기분이 좋아져 삶에 대한 의욕을 느끼게 하는 아나운서”라고. 목소리? 대체 어떤 목소리를 두고 말함인가? “구김살 없이 명랑하고 생명력이 넘쳐야 한다.”는 것이 독본의 부연 설명이다. 말은 쉬워도 얼마나 까다로운 주문인가? 늘 바쁜 일상에 시달리고 부대끼는 입장에서 명경지수명鏡止水같이 차분하고 맑은 마음만을 지닌다는 게 분명 수월한 일은 아닐 것이다. 게다가 마이크는 얼마나 예

민하고 매정한 존재인가! 전혀 여과시킬 줄 모르고 마음의 그늘을 곧이곧대로 짚어내지 않던가?

‘들어서 기분 좋은 목소리’와 더불어 아나운서가 지켜나가야 할 가장 큰 덕목은 품위이다. 사전은 품위를 ‘사람이 갖춰야 할 기품이나 위엄’으로 풀이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규정 제27조는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품위 없는 방송의 예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품위, 이 우아한 낱말이야말로 아나운서를 아나운서답게 만드는 바탕이자 버팀목이 아닐까? 아나운서에 대한 존경과 신뢰, 그리고 박수와 갈채도 바로 이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품위’ 때문일 것이다.

품위에 관한 예화 한 가지. 2007년 중반쯤으로 기억한다. 방송계에 새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아나운서이면서 연예인이라는 뜻의 합성어인 ‘아나테이너’가 등장한 것이다. 처음에는 기존 연예인과 다른 차별성과 희소가치로, 또는 돌발과 의외성으로 꽤 관심을 끌고 인기도 있었다. 방송사에서 연예기획사로 적

을 옮긴 아나운서도 있었던 점이 이를 반증한다. 하나, 아쉽게도 몇몇을 빼고는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왜 그런가? 아나운서와 연예인은 캐릭터 면에서 생판 다르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아카데미하고 품위 있는 이미지’의 아나운서가 느닷없이 ‘망가지고 깨지는 연기’를 태연스럽게 해낸다는 것이 좀처럼 간단치 않아서이다.

해마다 수천 명에 이르는 젊은이들이 방송사 문을 노크하고 있다.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서다. 찬란한 스타로 우레 같은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서다. 그들의 높은 꿈을 누가 말리랴? 하지만 이런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오디언스들은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목소리’를 으뜸으로 알고, ‘품위’를 아나운서의 최고 덕목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전 KBS뉴미디어국 부주관
국제방송국 부장
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

제44회 한국방송대상

작품상

- 뉴스보도 SBS 문체부 블랙리스트, 관리 지침 특종 연속 보도 시사보도(TV)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살수차 9호의 미스터리-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진실' 시사보도(R) CBS <김현정의 뉴스쇼> '대선 기획 라디오 대통령 민생 현장을 가다' 다큐멘터리(TV) MBC <휴먼다큐 사랑> '나의 이름은 신성혁' 2부작 생활정보(TV) EBS <명의> '병이 되는 잠 -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생활정보(R) KBS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고령화 사회, 청년들의 출구는?' 문화예술 KBS <환생> 2부작 사회공익 KNN <다도락樂방> 지역다큐멘터리(TV) TBC <풍정라디오>, 포항MBC <독도DNA> 지역다큐멘터리(R) KNN <배리어프리 오페라> 6부작 장편드라마 KBS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54부작 중단편드라마 KBS 수목 미니시리즈 <김 과장> 예능버라이어티 MBC <무한도전> '역사X합합 프로젝트 위대한 유산' 음악구성(R) CBS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연예오락(TV) SBS <미운 우리 새끼> 연예오락(R) TBS <배철수, 전영미의 9595쇼>

개인상

- 공로상 배우 고故 김영애, 윤근일 PD 아나운서상 이상희(OBS) 진행자상 CBS 한동준 프로듀서상 EBS 정재용 <다큐프라임> '불멸의 진시황' 작가상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작가진 성우·내레이션상 MBC 김경식 <출발!비디오여행> '영화 대 영화' 연기자상 남궁민 - KBS <김 과장> 코미디언상 이수지 - KBS <개그 콘서트> 가수상 방탄소년단



아나운서상 OBS 이상희 <미디어 공감 좋은 TV>

마음에 차는 방송을 하는 그 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축하 인사를 건네주신 많은 선배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분들도 잘 할 수 있다고, 잘 하고 있다고 늘 북돋아주셨던 여러 선배님들이었습니다. 특히 23년 전, 아무 것도 모르고 열정만 넘치던 새파란 신입사원을 한 수 접고 어여뻐 봐주시며 아나운서란 어떠한 해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신 선배님들, 그때 그 가르침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마음속 등불로 삼고 매진하겠습니다.

잘해서 오래 하는 게 아니라 '오래 하다 보니 그리 됐다'는 말이 딱 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미디어 바로보기>, <전격TV소환>, <미디어 공감 좋은 TV> 등 여러 미디어 비평,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15년 가까이 진행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도 뉴스 진행을 놓아본 적 없는 것 또한, 늘 날을 버리고 축을 세워야 하는 아나운서로서 너무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회사와 제작진, 출연해주신 교수님과 패널들, 방송사 선배님들 덕분입니다.

연차가 쌓일수록 언제쯤이면 만족스러운 방송을 할

수 있을지 매일매일 아쉬움이 앞섭니다. 방송을 마칠 때마다 '좀 더 준비하고 캐묻고 끌어내고 정리할 걸...' 하는 미진한 마음에 수없이 제 자신을 다잡게 되는데, 이번 수상이 여기에 조금은 답을 준 것도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계속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끝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러다보면 언젠가는 마음에 차는 방송을 하는 날이 올 거라고요. 힘을 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OBS를 챙겨주신 클럽 선배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 올립니다. 크지 않은 신생 방송사인 OBS에서 방송대상 아나운서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선배님들께서 응원해주셨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녹록치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OBS와 아나운서팀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보내주시는 격려와 응원 잊지 않고 좋은 방송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4회 방송의 날 축하연에 회원 40여 명 참석

이지연, 김성주 회원 등 방송 진흥 유공 정부 포상도 받아

한국방송협회 주최 제54회 방송의 날 축하연이 9월 1일 오후 6시 30분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한상권(KBS) 아나운서의 사회로 열렸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대독代讀한 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방송 산업 활성화와 콘텐츠 산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방송인들이 더 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와 KBS, MBC 노조 동시 파업을 앞두고 시위자들이 사장 퇴진 구호를 외치



(뒷줄 왼쪽부터 지그재그로) 김규홍 송현식 임화숙 백연숙 박문국 김상근 박영웅 이보길 이주재 한상권 이종태 이병혜 윤성원 홍기욱 차기정 남궁미 배우선 채영신 김명숙 윤희자 박찬숙 이혜옥 윤영중 이성화 황인우 임주완

는 등 예년과 달리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펼쳐진 축하연에서 아나운서클럽 회원 40여 명은 변함없는 우의를 과시했다.

축하연에 앞서 오후 5시에 라벤더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방송 90주년 기념 방송 진흥 유공 정부 포상 시상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KBS 서기철 아나운서가 대통령 표창, SBS 배기완 아나운서가 국무총리 표창, 김성주(전 MBC) 회원이 문체부장관 표창을 받았고, 이지연(전 CBS) 회원을 비롯해 MBC 신동호 아나운서국장과 아나운서 출신 김수정 홍보국장이 방송협회장 표창을 받았다.



방 | 송 | 가 | 소 | 식



성기영 실장, 원석현 오유경 한상권 부장 승진



성기영 원석현 오유경 한상권

8월 1일자로 성기영(1991년 입사, 공채 18기) 아나운서가 아나운서실장으로 승진했다. 이어 아나운서1 부장 원석현, 2부장 오유경, 한국어연구부장에 한상권이 임명되었다.

'KBS 한국어 포스터' 전시회 서울시민청서 열려

KBS 아나운서실은 제1라디오 '바른 말 고운 말'(월~토 06:56~06:58 제작 및 방송을 비롯해 KBS 한국어 상담실(02-781-3838) 운영, 해외 한인 방송사와 해외 한국어 교사 대상 한국어 교육, 정부와 공공 기관 바른 언어 교육, 시각장애인을 위한 낭독 봉사자 교육 등 한국어의

가치를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시민청 시민플라자에서는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매월 공공 기관과 전국의 초등학교에 배포하는 'KBS 한국어 포스터' 특별 전시회가 열렸다. 하반기에는 국립한글박물관, KBS 시청자광장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규봉, 하노이서 KBS한국어아카데미 개원 앞두고 한국어 특강



KBS한국어진흥원(원장 박현우)이 베트남 현지 운영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지 6개월 만인 8월 3일 KBS한국어아카데미를 개원했다. KBS한국어아카데미는 KBS 방송 콘텐츠를 담은 한국어 교재를 이

용해 베트남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육 과정이다. KBS한국어아카데미 본 강의에 앞서, 이규봉 아나운서가 7월 13일과 16일까지 나흘간 베트남을 방문해 하노이 IELTS CNR에서 12세 ~ 25세 베트남 학생 및 직장인 16명을 대상으로 한국어에 대해 강의했다. 총 8시간에 걸친 특강은 한글에 대한 소개와 한글 자모 익히기, 한글 조합에 대한 내용, 총 복습과 자신의 이름 한글로 쓰기, 간단한 자기 소개 등으로 진행되었다.

<황정민의 FM대행진> 19년 방송 마감



황정민 아나운서가 9월 3일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1998년 10월 12일부터 19년간 진행한 KBS 쿨FM <황정민의 FM대행진>을 떠났다. 후임은 박은영 아나운서가 맡았다. 황정민 아나운서는 1993년 공채 19기로 입사, 2005년 정신과 의사와 혼인, 슬하에 남매를 두고 있다.



MBC 신입 아나운서 5인, <우리말 나들이> 맡아



왼쪽부터 김민호, 김수지, 이휘준, 김수지, 이선영

5월 22일, 남2, 여3 등 5명의 신입 아나운서가 입사했다. 이들은 6주간의 신입사원 교육을 마치고 7월 28일부터 <우리말 나들이>(월-금 오전 10시 55분, 오후 4시 55분)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말 나들이>는 제작 20주년을 맞아 4,056회 ~ 4,059회까지 신입 아나운서들의 매력을 보여주는 특집 네 편을 방송했다.

광복절 기념 임진각 <2017 DMZ 평화 콘서트> 열려

<2017 DMZ 평화 콘서트>가 8월 12일과 13일 오후 7시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무대에서 열려, 15일 오후 6시 35분과 16일 오전 12시 30분에 방송되었다. 12일 K-POP 콘서트는 이성배 아나운서, 소유, 육성재(BTOB)의 사회(사진)로 소녀시대, BTOB, B1A4, 마마무, 여자친구, 케이윌, 에일리, 우주소녀, SF9, 아스트로, 안예은, 듀에토 등이 출연했다.



13일 이재은 아나운서, 장일범 음악평론가가 진행한 클래식 콘서트는 성시연이 지휘하는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유키 구라모토, 대만 바이올리니스트 유치엔 쉐, 신지아, 팡페라 그룹 포르테 디 콰르토의 무대로 펼쳐졌다.



가을 개편에 따라 진행자 교체 박광범 <섹션 라디오> DJ 발탁



SBS 러브FM 가을 개편을 앞두고 <섹션 라디오>의 DJ가 정석문 아나운서에서 박광범(사진) 아나운서로 교체되었다. <박광범의 섹션 라디오>는 9월 2일부터 주말 아침 10시에 방송되고 있다. 한편 매주 일요일 오후 8시 45분에 방송되는 <맨인 블랙박스>의 MC가 기존 최기환, 김구라, 김선재에서 최기환 단독 MC 체제로 바뀌었다. <맨인 블랙박스>는 블랙박스 포착한 영상을 활용해 정보를 전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아나운서들의 익명 토크쇼 인기 팟캐스트 <아나콘다> 방송 시작



7월 중순, 세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공론의 장이 펼쳐졌다. 20대부터 50대에 이르는 아나운서들이 서로 별명을 부르며 토론을 벌이는 팟캐스트 방송 <아나콘다>이다. '아나운서들의 토크 콘서트'로 주제는 모두 다 다룬다는 제목처럼 방송 3주 만에 고정 청취자 1,200여 명, 최고 순위 23위까지 오른 <아나콘다>는 앞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나 청취자들을 초대한 토크쇼를 펼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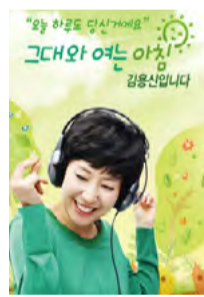
미래환경협회 홍보대사로 위촉 유영미 부장 2년간 활동



유영미 아나운서부장이 재불在佛 화가 홍일화, 배우 김지수 등과 함께 7월 4일 (사)한국미래환경협회(회장 유찬선)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SBS 러브FM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을 제작 진행하는 유 부장은 앞으로 2년간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그대와 여는 아침 김용신입니다> 제44회 방송대상 작품상 수상



박상완 연출 <그대와 여는 아침 김용신입니다>가 올해 방송대상 음악구성부문 작품상을 수상했다. 2007년부터 11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용신 아나운서는 "연예인과 프리랜서 방송인들 속에서 아나운서 진행자로서 신뢰와 인정을 받은듯해 보람 있고 기쁘다. 그동안 못 잤던 아침잠을 다 보상받은 느낌이다."라며 10년간 한결같이 응원해준 선후배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제2회 부천전국대학가요제 조은유 진행



부천시 주최 서울신대학교(총괄 합춘호 교수) 주관 제2회 부천전국대학가요제

가 7월 14일과 15일 부천마루광장에서 조은유 아나운서 사회로 열렸다. 14일 예선엔 253팀 중 사전 심사를 거친 45팀이 무대에 올랐고, 장맛비가 내린 가운데 12팀이 경쟁을 벌인 15일 본선에서는 동덕여대 SamAO,B 팀이 '환자 김청춘'으로 대상에 뽑혀 상금 700만 원과 기타 1대, Purple Jean 팀이 금상을 수상해 상금 300만 원과 기타 1대를 받았다.



아나운서부, 장기근속 선배들에게 감사패와 선물 증정



왼쪽부터 초대손님 김종필 보도국장과 함께한 최지은 나선홍 아나운서

tbs 아나운서부는 8월 2일 후배들을 이끌어준 장기근속 선배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첫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근속 20년을 맞은 나선홍 아나운서(<김미화 나선홍의 유쾌한 만남> 진행)와 근속 10년째인 최지은 아나운서(<라디오 와이파이> 진행)가 감사패와 황금 열쇠를 받았다. 증정식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제주극동방송과 제주하나센터 탈북민 언어 교육 실시



제주극동방송(지사장 신요섭, 제주FM 104.7MHz, 서귀포FM 101.1MHz, AM1566Khz)은 탈북민 대상 언어 교육을 실시했다.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에서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하나센터와 함께 6월 27일부터 7월 18일까지 4주간 주 1회 펼쳐져 탈북민으로부터 취업 역량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언어 교육이었다는 평을 받았다.

제24회 전국복음성가경연대회 송옥석 이정연 진행



제24회 전국복음성가경연대회가 송옥석, 이정연 아나운서의 사회로 8월 24일 오후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6개월간 4번의 예선을 거쳐 선발된 12팀의 무대와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과 소향의 특별공연, 12팀이 함께 부른 옴니버스 곡을 선보인 이날, 대상은 '믿음 하나'를 부른 이성신 씨가 차지했다.



김슬아 아나운서 채용



김슬아 아나운서가 객원 아나운서로 선발되어 7월부터 <라디오 성경>(월~일, 오전 1시~2시)과 <안병철 신부의 성서못자리>(토~일, 오전 6시~7시)의 진행을 맡고 있다. 앞으로 TV에 신설될 신앙 강좌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교황청 시스티나성당 합창단 내한공연 김슬애 진행



7월 5일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성당에서 열린 교황청 시스티나성당 합창단 첫 내한공연이 김슬애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종교간 화합의 의미를 살려 개신교와 불교 등 7대종단 지도자들도 초대, 1,700여 명의 관객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번 공연은 3년 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당시의 순간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되었으며, 7월 21일과 22일 녹화 중계되었다.

신의석 <IF YOU 시즌 2> 진행

8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화요일 밤 9시, 수요일 자정, 일요일 오전 9시 등에 방송되는 <성경인물탐구 IF YOU 시즌2>에 신의석 아나운서가 투입되었다. 신 아나운서는 구약과 신약성경 속 다양한 인물들을 다루는 토크멘터리쇼 <IF YOU 시즌 2> MC를 맡아 최광희 마태오 신부, 생활 성가 가수 박우곤, 연예인 패널 등과 함께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눈초 이규향의 발음 이야기 17

바른말실천운동시민협의회 제공

수사數詞[수:사] / 수관형사

- 서수사序數詞 '2' / '4' / '5' 양수사量數詞 '둘' / '셋' / '넷' / '열' / '만'은 장음이다

「수사」에는 수량을 뜻하는 「양수사」와 차례를 나타내는 「서수사」[서:수사]가 있다. 그런데 「만萬」 같은 「양수사」도 「만: 명」처럼 명사를 수식하면 「양 수관형사」가 되므로 구분하지 않고 「수사」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수사」에는 정해진 수량을 뜻하는 「정수定數」[정:수]와 정해지지 않은 「부정수不定數」가 있다.

수사를 도표로 요약해본다.

- 量數詞
 - 定數 : 하나 둘 셋 넷 열 ... 산, 一 二 三 十 百 萬
 - 不定數 : 두셋 서넷 너댓(넷가량) 너더댓(넷이나 다섯)
대: 여섯(다섯이나 여섯) 여남은(열 남짓한 수), 몇, 여럿
- 序數詞
 - 定數 : 첫째 둘째 셋째 넷째 ... 열째 ... 스무째 ...
第一 第二 第三 第四 第五 ... 第十
 - 不定數 : 한두째 두셋째 너댓째(넷째쯤) 너더댓째(넷째나 다섯째)
대: 여섯째(다섯이나 여섯째) 여남은째(십여째), 몇째

수사의 표현이 다양하면서 복잡하다. 그러나 모든 언어에서 불규칙동사를 인정해야 하듯이 수사 또한 한국어의 특징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은근함이 한국의 미」라 했듯이 「부정수」에서는 우리말만의 운치를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표준 발음법 제1장 제1항은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서수사」에서 「2, 4, 5」가 장음인 이유는 ㉠국어의 전통성으로 해석된다. 또한 「양수사」에서 「萬」은 성조聲調가 장음이다. 그리고 「하나」[나], 「두울」[두], 「세엿」[세], 「네엿」[네], 「다섯」[다], 「여섯」[여], 「일곱」[일], 「여덟」[여], 「아홉」[아], 「여열」[여], 「열:」처럼 「2음절」로 통일하다 보니 단음절인 「둘:/셋:/넷:/열:」이 장음이 된 바 ㉡합리성으로 풀이된다. 이는 국어학자들이 규정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언중言衆보다 일상 언어 생활을 중시했던 과거 우리 선조들의 작품(?)이라 하겠다.

숫자 읽기에서 10[십(○)/일십(×)] 100[백(○)/일백(×)] 1,000[천(○)/일천(×)] 10,000[만(○)/일만(×)] 10,000,000[천만(○)/일천만(×)]까지는 「1」이 생략되고, 그 이상의 수에서는 역[일억(○)/억(×)] 조兆[일조(○)/조(×)] 경京[일경(○)/경(×)]으로 읽는 규범은 ㉠국어의 전통성으로 해석된다.

모음 「ㄱ:/ㄴ:/ㄷ:」가 긴소리일 때는 장고모음長高母音(장음+고모음 : 다음 번 글

에서 설명)이라고 하는데, 학계에서 「열」[열:]은 유일한 「단수 장음」의 예로 인용되고 있다. 전에 <아나운서저널>에서 모 아나운서가 「열:」이 단음임을 강조한 바 있는데, 1961년도 필자의 첫 방송이 「10:시 콜사인」이었던 바 독자의 혼동을 없애주기 위해 이는 KBS 아나운서실의 전통 발음임도 밝혀둔다.

수 관형사의 쓰임을 이계진 아나운서의 글로 정리해본다.

- 명名 : 일 명을 모집합니다. (조금 이상함) 한 명을 모집합니다. (자연스러움)
십오 명이 합격됐습니다. (그런 대로) 열다섯 명이 합격됐습니다. (더 좋음)
- 개個 : 일 개, 이 개, ... 구 개, 십 개(×) / 한 개, 두 개, ... 아홉 개, 열 개(○)
삼십오 개 동(△) / 서른다섯 개 동(○)
- 시간 : 일 시간 이 시간(×) / 한 시간 두 시간(○)
아십사 시간(△) / 스물네 시간(○)
- 세歲 : 스무 세 여든 세(×), 아십 세 팔십 세(○)
- 십十단위 : 칠십아홉 팔십다섯(×) / 칠십구 팔십오(○)
- 척隻(선박의 단위) : 일 척 이척 삼척(×) / 한척 두척 세척(○)
- 근 : 삼 근 사 근(×) / 세 근 네 근(△) / 사 근 다섯 근(○)
- 돈 : 삼 돈 사 돈(×) / 세 돈 네 돈(△) / 사 돈 다섯 돈(○)

이계진 아나운서는 「조금 이상함, 자연스러움, 그런 대로, 더 좋음」이라며 말의 느낌을 강조했는데, 표준어의 조건은 통용력通用力과 함께 「듣기 좋은 말」이라는 조건 역시 무시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싶다.

「한평생 누린 나이/향년享年」의 쓰임에서 50대와 60대는 그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이 일본에 2:3으로 석패惜敗」라는 스포츠 기사는 큰 숫자가 앞으로 오는 「3:2」가 자연스럽다. 음력의 달 표현으로 「1·2월/정이월, 11월/동짓달, 12월/섣달, 11·12월/동지섣달」에서 후자가 정감이 간다. 「오뉴월」은 5월과 6월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더위가 한창 심한 여름炎天을 뜻한다. 또 「114[일릴사(×)/일릴사(절음법칙 ○), 일릴싸(○)] 그리고 「0」은 숫자일 때 [영], 기호일 때는 [공](예 : 0.01[영점영일]/010[공일공])이다.

이번 글에서 한글 전용의 애국심으로는 글을 쓸 수 없었음을 밝혀둔다. 언어는 변하므로 「서너 명/서너 개」를 「세네 명/세네 개」라고 독선에 빠져 있는 독자들은 이 글을 옛날 문법이라고 치부하여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할지도 모른다.



이 규 향
• 고려대 국문학과 졸업
• KBS 아나운서 실장
• 한국어문화 한자급 취득자
• 음성언어교육 강사
• 문교부 국어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회 | 원 | 동 | 정

미주 회원들도 후원금과 연회비 보내와



미주 회원들로부터 후원금과 연회비가 답지해 아나운서클럽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미주방송인협회 홍우창(전 TBC, 위 사진) 회장이 고국을 방문하며 6월 15일 클럽 운영진에게 50만 원을 전달했고, 위진록 회원은 6월 30일 20만 원을 기탁했다. 또한 버지니아주에서 워싱턴한인방송국을 운영하는 박용찬(전 MBC) 대표는 미국에서 자서전, 방송사 관련 자료와 CD, 미화 1,000 달러 수표를 동봉한 소포를 보내왔다. 그리고 오리건주에 거주하는 임옥자(전 KBS) 회원은 올 봄 서울에 왔을 때 연회비를 납부해주었다. 미주 회원 여러분의 정성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세 번째 수필집 <행복의 씨앗 심기> 출간



어호선(전 KBS) 팔순을 맞아 <행복의 씨앗 심기> (온새미)를 펴냈다. 1980년 <한국수필>을 통해 등단, <차가운 세월 속에 즐거운 합창(공저)>, <특별한 사진> 등 수필집과 시집 <사랑은 진주처럼>을 출간한 바 있다. 1969년 입사한 어호선 회원은 현재 대한노인회중앙회 이사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이사로 활동 중이다.

공공혁신 리더십 경영 부문 대상 수상



신은경(전 KBS) 7월 25일 중앙일보 주최 '2017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KYWA) 이사장으로서 공공혁신 리더십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6월부터 청소년행복캠페인 '고마워Yo(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을 통해 청소년의 행복지수 높이기와 '청소년 균형 성장 플랫폼'의 확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광주U대회 성공 개최 공로 대통령 표창



유지현(전 SBS)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대변인으로 활약한 유지현 회원이 국가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7월 18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1991년 12월 SBS 공채 1기 아나운서로 입사한 유 회원은 미국 유학으로 인해 2003년 퇴사 후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석사와 국제회의·이벤트 매니지먼트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MBC 뉴욕 지사 경제 기자로 <투데이 세계경제>를 진행하다 2009년 SBS CNBC가 개국하며 경제 기자 겸 앵커, 뉴욕 특파원으로 <글로벌 경제 뉴스>를 진행했다. 그 후 인천아시안게임 외신 대변인,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대변인, 평창동계올림픽 외신 대변인으로 활약했다.

예술문화인대상 방송진행부문상 수상



한석준(전 KBS) (주)에이치엘컴퍼니, 도전 한국인 운동본부 주관으로 8월 31일 더파티움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예술문화인대상 시상식에서 방송진행부문상을 수상했다. 2003년 공채 29기로 입사한 한 회원은 <사랑의 리퀘스트>, <연예가중계>, <일 대 백> 등을 진행하다 2015년 11월 프리랜서 선언, 현재 O tvN <프리한 19>, MBN <아궁이> 중화TV <삼국지 덕후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철원(전 MBC) 전 부회장 별세



이철원(전 MBC) 전 부회장이 향년 82세로 7월 3일 별세했다. 고인은 1958년 KBS에 입사, 1964년 MBC로 옮긴 후 스포츠 중계로 이름을 날렸다 축구와 권투를 비롯해 프로레슬링·농구·배구·유도·마라톤 등 전문 스포츠캐스터로 활약하다 1986년 퇴직한 후 전주 MBC 사장, 평화방송 전무를 역임했다.

온스타일 <뜨거운 사이다> 진행



박혜진(전 MBC) 8월 4일부터 온스타일 토크쇼 <뜨거운 사이다> MC를 맡고 있다. 박 회원(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은 개그우먼 김숙, 배우 이영진, 변호사 김지혜, CEO 이여영, 저널리스트 이지혜 등 여성 출연진과 함께 사이다처럼 특 쏘는 이야기를 나눈다.

EBS FM <행복한 교육세상> 진행



김정근(전 MBC) 8월 28일부터 매일 오후 5시 EBS FM(104.5MHz) <김정근의 라디오 행복한 교육세상>의 DJ를 맡고 있다. 김 회원은 2004년 입사, <생방송 오늘 저녁>, <리얼스토리 눈> 등을 진행하다 올 3월 퇴사했다.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 출연



오영실(전 KBS) 8월 31일 방송된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에 출연했다. 1987년 공채 15기로 입사, <TV유치원>을 진행한 오 회원은 1997년 프리랜서 선언 후 <아내의 유혹>에서 연기자로 변신, 현재 <황금주머니>에 출연 중이며 최근 한아름컴퍼니와 전속계약을 했다.

코미디 영화 <구세주: 리턴즈> 주연 맡아



김성경(전 SBS) 영화 <구세주: 리턴즈>에서 배우 최성국과 함께 주연을 맡았다. IMF를 배경으로 한 2006년 1편, 2009년 속편에 이은 정통 코미디이다. 1993년부터 10년간 SBS 근무 후 프리랜서를 선언한 김 회원은 3년 전부터 연기도 병행해 왔다.

MBC 월화 드라마 <20세기 소년소녀> 출연



오상진(전 MBC) MBC TV 새 월화드라마 <20세기 소년소녀>에서 변호사 역을 맡았다. 오 회원은 2006년 입사, <찾아라 맛있는 TV>, <불만제로>, <스타 오디션 위대한 탄생>에 출연했고 2013년 프리랜서 선언 후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스웨덴 세탁소> 등에 출연했다.

선문대에서 라디오제작론 강의



고성균(전 KBS)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선문대학교 초빙교수로 임명되어 9월 학기부터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3학년 라디오제작론을 강의 중이다. 고 회원은 1973년 공채 1기로 입사, 원주방송국장, 라디오제작본부장을 지내고 대한적십자사 총재 홍보 특보와 복지TV 교문, 동아방송예술대 방송기술과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MBC사우회 한문동호회에서 명심보감 강의



권혁화(전 MBC)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고전번역교육원의 고전번역 연수과정 3년 과정을 이수하고 MBC사우회에서 한문동호회의 '명심보감' 교양강좌를 맡고 있다. 1984년 입사한 권 회원은 아나운서실과 홍보실을 거쳐 1994년 명예퇴직 후 MBC아카데미에서 근무했다.

행정서비스통합 포털 '정부24' 홍보대사



조우중(전 KBS) 7월 26일 행정 서비스 통합 포털 '정부24' 개통식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홍보대사 위촉장을 받았다. 정부 24는 민원서류 발급 등 행정서비스와 정책, 정보를 통합한 온라인 사이트이다

Zoom-in 범효춘(전 KBS) 회원



시조를 읽으면 잘 늙어갈 수 있어요

『‘성공적 노화’ 관점에서 본 노인 시조 주제 연구』로 박사학위 받아

선배는 인터뷰 요청에 “부끄럽다. 게다가 한 달간 쉴 겸 미국 여행을 떠나니 시간이 안 맞는다.” 하며 손사래를 쳤다. 그러다 응낙했는데, “그동안 공부한답시고 인간관계를 소홀히 한 결례에 대한 사죄와 해명의 기회로 필요하겠다.” 싶어서란다. 그런데 인터뷰는 뜻밖에도 ‘광주사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어제 밤 <택시운전수>를 봤는데, 당시 방송했던 사람으로서 진실을 호도하고 광주 시민을 비롯해 피해자들을 외면해왔던 게 떠올라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광주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로 말문을 꺼내는 선배를 보며, 오래 전 일이 떠올랐다.

1980년대 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운영하는 박물관대학 수강 신청을 하러 간 사무실에 선배가 있었다. 70년대 인기 아나운서였던 선배와 얼마 같이 근무하지도 못하고 헤어져 서운했는데 거기서 마주치다니 원군 援軍을 만난 기분이었다. 그런데 선배는 “한창 방송이 많을 텐데, 여긴 출결出缺이 엄격하니 나중에 배우러 오라.”며 만류하는 것이었다. 아나운서실에서 퇴직한 선배를 박물관 사무실에서 만날 줄이야, 또 그렇게 나를 되돌려 보낼 줄이야!

선배의 뜻밖의 면모가 자못 궁금해졌다.

글 / 편집장 황인우

매력적인 목소리로 공채 1기 아나운서 되다

이화여대 사범대에서 영어교육을 전공했지만 봉사 서클에서 ‘목소리가 매력적이다’란 평을 들었기에 아나운서 시험에 응시, 운 좋게 합격했다. KBS가 공사로 바뀌며 선발한 공채 1기로 4학년 때인 1973년 11월에 입사했다. 이제진 아나운서를 비롯해 여자 동기만도 10명이나 되는데, 그때는 여자는 결혼하면 그만둬야 했다. 부사장님과 면담할 때 “왜 여성은 결혼하면 일할 수 없나? 평생 일하고 싶다.”라고 당돌하게 따졌던 적이 있다. 그 후 7년간 씬 없이 <모이자 노래하자>, <누가누가 잘하나>, <아침의 화제> 등 다양한 방송을 진행했다.

더 깊게 공부하고자 홍익대서 미술사 전공해 석사학위 받아

방송이란 게 폭은 넓어지지만 알팍한 지식으로 하는 것 같아 회의가 와, 홍익대 대학원에 진학해 미술사를 전공할 때, 당시 김도진 보도본부장이 여자 앵커를 키울 요량이었는지 내게 기자 전직轉職을 권유하셨다. 공부 중이라서 나중에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했는데 1년 후 재차 권유하시더라. 이미 맘을 굳혔던지라 석사 논문을 쓸 생각으로 80년 9월에 퇴직했다. 81년 6월에 혼인도 하고 국립중앙박물관 해외과 전문위원으로 취직해 83년까지 근무하며 상명여대 강의를 시작으로 15년간 성신여대, 가천대 등에서 미술사를 가르쳤다. 또한 <박물관 대학>을 연출하던 전숙영 후배의 요청으로 구성작가로 활동하며, KBS 자회사에서 발행하던 <여성백과>란 잡지에 박물관 유물을 소개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자녀교육상담실> 진행하며 상처와 치유에 관심 가져

경제 형편이 넉넉지 않아 공부를 계속하려면 일을 해야만 했다. 85년에 방송 요청이 와 제1라디오 <자녀교육상담실>을 맡았다. 두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도 도움이 많이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상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였다. 사람은 누구나 자식을 잘 키우고 싶어 한다. 하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부모가 되어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10년간 진행하는 동안 나 자신에게도 일종의 치유의 과정이었는데 그 바람에 또 인생이 바뀌었다. 한국정신분석상담소, 한국심리상담연구소 등에서 공부했고, 한국좋은인간관계학회에서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도 받았다. 제작진에게 상담 전문 MC처럼 인식이 되었는지 97년부터 99년까지 <제2라디오에 물어보세요>, 환우患友 대상 <범효춘의 사랑을 드립니다> 등 상담, 치유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게 되었다.

장애인 대상 <내일은 푸른 하늘> MC로 세상 보는 눈 떠

2000년에 제3라디오가 개국하며 2001년부터 맡게 된 <우리는 한가족>은 가출 청소년, 기지촌 여성, 독거

노인 등 소외 계층 대상 프로그램이었다. 이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장애인 전문 <내일은 푸른 하늘>을 진행했다.

그렇게 방송하며 그 동안 무심코, 때로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며 지내온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니 정말 미안했다. 세상의 무심함 속에서 참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세상은 장애인들에게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지내주기를 바란다. ‘장애인 방송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 또한 장애인들을 몰라라 하며 지냈을 텐데, 큰일 날 뻔했다’ 싶었다.

그때 만난 장애인 방송인이 ‘철벽 같은 방송사’에서 ‘장애인을 활용만 하고 버린다’고 하는 말에 책임을 느껴 2007년부터 지금까지, 장애인 방송인 7명과 함께 매달 모여 강의도 하며 방송 훈련을 돕고 있다. 그러나 10년간 장애인 리포터 2명을 배출했을 뿐이다. 장애인 방송인이 있어야 방송에서 살아있는 당사자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방송에선 ‘장애인의 재활은 장애인 고용에 있다’고 말하면서, 함께 일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비장애인 작가를 쓰는 형편이니 말해 무엇 하랴!

독서교육학 석사에 이어 노인 시조 연구로 국문학 박사까지

94년경 캘리포니아주립대학원 독서클리닉 소장이던 전정재 교수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독서지도사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도 참여하게 되었다. <자녀교육상담실>을 그만두었던 96년부터 4년간 가톨릭 수사님이 운영하는 자녀교육상담소 연구원으로 일했고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에서 독서교육학과 석사도 취득했다.

책 읽기, 그 중에서 우리의 전통시인 시조時調를 다루게 된 것은 문학평론가로 가톨릭대 석사과정의 지도교수였던 김봉근 ‘전민족시조생활화운동본부’ 이사장 덕분이다. 우리의 시조를 일본의 ‘와카(和歌)’나 ‘하이쿠(俳句)’처럼 생활 문학으로 부흥시키자는 뜻에 동참해 2005년엔 계간 <시조생활>을 통해 시조시인으로 등단했다.

그리고 2009년에 시조를 활용한 독서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박사 과정에 들어갔다. 세상에서 물러난 사대부, 가객 등이 노년의 삶과 정서를 노래하는 고시조는 늙음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시작하여 결국 행복한 노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성공적 노화’는 요즘은 노년학과 심리학 연구의 주요 이슈이다. 나의 박사학위 논문 『‘성공적 노화’ 관점에서 본 노인 시조 주제 연구』는 ‘시조를 노년학과 심리학에서 말하는 성공적 노화 과정의 단계별로 주제 분류함으로써, 고시조 작가들이 시조를 지으면서 스스로를 치유하며 행복한 노인이 되려고 했으며, 그렇게 분류된 시조들은 현대 노인들의 부정적인 정서와 아픔을 치유하고 성공적 노화로 이끌 수 있음’을 입증하는 연구이다.

쉽지 않았던 방송과 학업 병행, 그리고 가족들

2012년부터 논문을 쓰기 시작해 5년이나 걸렸다. 가사로부터 자유롭지 않아 공부시간 확보가 쉽지 않은데다가 계속 하강하는 기억력과 체력 또한 큰 걸림돌이었다. 이미 했던 작업을 또 하면서, ‘이 나이에 쓸데없는 허망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회의가 일 때도 많았다. 그러나 하루를 가사, 운동, 도서관 등으로 쪼개어 체계적인 생활을 하자 인지와 체력도 잘 유지되었다.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있다 보니 집안일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던 남편에게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좋은 훈련 기간이 된 것도 나이 들어 공부함으로써 얻게 된 또 하나의 수확이다.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일을 했던 젊은 날, 아이들 성장기엔 너무나 힘들었다. 방송과 강의를 한답시고 아이들을 남의 손에 맡겨야 했는데, 다행히 딸 둘이 잘 키워 큰딸은 금융 리스크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하다 빅 데이터 공부하겠다고 미국에 석사 하러 갔고 둘째는 특수 교육을 전공하고 교사로 일하고 있다. 아직 미혼이라 걱정인데, 여건이 좋아졌다고 해도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에서는 아직도 여성에게 불리한 환경이다. 미래 세대를 낳아 잘 기르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해, 여성의 직업과 가사의 이중고를 덜어줄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욕심 없이 좋아하는 일 하며 자연스럽게 늙어가기

오랫동안 매달린 일을 끝내니, 그 동안 하지 못하고 미뤄둔 것들이 마구 떠오른다. 우선 집안 정리부터 하고, 나와 주변을 정비해봐야겠다.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도 만나고 좋아하는 여행도 다니며 꽃과 정원 가꾸기, 외국어 공부도 해보고 싶다. 또 내가 방송인의 목표를 이루게 해주신 분들께 감사 표현을 못했는데,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강의를 하기 보다는 고시조를 도구 삼아 성공적인 노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누고 싶다. 사실 꿈은 갖되 매이지 않으려 한다. 한탄과 집착의 대상이 되는 건 꿈이 아니다. ‘성공적인 노화’, 즉 ‘행복한 노인 되기’에는 욕망을 포기하는 일이 중요하다.

돌아보면 지금까지 참으로 다양한 방송과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며 살아왔던 것 같다. 때로는 내 삶의 지나친 다양성이 몹시 후회스럽고 못마땅했다. 한 우물을 깊게 파더라도 이른 것이 더 많았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요즘엔 “나의 중구난방 호기심 덕분에 그동안 재미있게 살았다.”로 정리했다. 성공적 노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지난 과거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과 다가오는 미래를 모두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고시조 작가들처럼 남은 인생을 즐기며 행복하게 늙어가고 싶다.



후쿠오카, 나가사키 3일 방문기

— MBC초록회 20여 년 만의 해외 나들이

‘방문기’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그저 ‘단체로 어딘가로 떠난다’는 데에 주안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어딘가’가 어디라도 별로 상관이 없었다. 다만, 연령층이 다소 높은 선배님들이 함께하는 우리 ‘초록회’의 특성상 다녀오기에 부담 없고 힘들지 않은 곳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했다.

20여 년간 정기적으로 만나는 동안 ‘우리 해외여행을 한번 다녀오자’ 라는 말이 간간히 오고가곤 했다. 그러나 그저 몇 번 말하다가 말았다. 그런데 이번에 정년 퇴직하고 초록회 신입 회원이 된 ‘조일수’가 ‘우리 여행가요’ 라고 말을 꺼내더니 강력히 밀어붙여 성사가 되었다. 말 꺼낸 날 참석자와 장소까지 대략 결정되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하여 우리 14명은 날씨도 쾌청한 6월 14일 12시 50분 비행기에 오른다.

후쿠오카공항에 도착, 버스로 2시간가량 나가사키로 가는 내내 가이드의 설명이 이어졌다. 나가사키의 야경은 일본의 3대 야경 중 하나라는 것. 나가사키의 3대 명물은 비, 카스테라, 나가사키 짬뽕이라는 것. 계란은 모두 유기농이라 맛있다는 것! 그리고 나가사키엔 16세기에 천주교가 들어왔는데, 오다 노부나가 시대엔 무척 호의적이었다가 지배 계층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부터 박해가 시작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엔 금교령禁敎令도 더욱 철저해졌다. 하지만 나가사키 데지마(出島)에 네델란드 상인들을 모아 살게 함으로써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는 창구 역할을 하게 했다고 한다.

우리는 나가사키의 또 다른 볼거리라는 전차를 타고 차이나타운과 데지마로 이동했다. 차이나타운과 데지마는 큰 거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차이나타운은 아마 세계에서 제일 작은 규모일 것 같다. 고작 5분 정도 걸으면 거리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구경할 수 있다. 특유의 붉은 빛과 황금빛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어 차이나타운 입구에서 단체 기념 촬영을 했다.



유카타를 입은 소녀들 (왼쪽부터 정영희 임국희 김채영 노영인 박찬순)

그리고 빠르게 데지마 쪽으로 이동, 5시 30분에 매표소에 당도해 510엔을 지불하고 입장했다. 6시까지 30분간 19세기 전반 양식으로 복원되어 있는 네델란드 상관商館 직원들이 살던 곳과 무역품을 보관하던 창고, 일본인 관리인의 대기실 등을 봐야 한다. 가구와 생활용품 등은 박물관 자료를 참고하여 제작하였고, 네델란드나 일본에서 산 것도 있다고 한다. 꾸준한 발굴 조사를 통해 쓰레기를 버렸던 구멍과 데지마 밑에서는 당시 해외로 수출되던 이마리(히젠 도자기) 파편을 비롯해 네델란드 선박이 가져온 서양의 유리와 도자기 파편, 아시아 도자기 등 무역에 관한 다양한 유물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데지마의 건물이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 벽돌, 토관, 술병, 먹은 뒤 버린 동물의 뼈와 조개껍데기 등도 다수 출토되어 일부를 구 석조 창고에 전시하고 있다.

구경을 마치고 6시에 다시 집합. 우리가 묵을 나가사키 호텔로 이동한다. 호텔이 산 속에 있다더니 버스는 계속 산길을 오른다. 버스에서 보니 맞은편에 바라 보이는 해안을 끼고 있는 산등성이에 집들이 빼곡한 것이 보인다. 아마 우리가 오르는 이 산길도 건너편에서 보면 그러리라. 식당에 도착, 저녁은 뷔페식이다. 기내식이 부실해 데지마에서부터 너무 배가 고팠다. 허겁지겁 식사를 했다. 뷔페여서 다행이었다.

호텔로 이동, 높은 곳에 위치한 호텔이라 창밖으로 보이는 경관이 아주 좋다. 나가사키 바다와 주변의 풍



초록회 첫 해외여행의 실행을 안고 후쿠오카 공항 인근에서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이인숙 임국희 박찬순 최화숙 김채영 노영인 정영희 안종순 서은선 김선희 조일수 최윤희 안주희(필자) 남궁미

경이 한눈에 보인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본식 호텔이 대체로 그러하듯, 침대와 아울러 화식和食으로 꾸며진 거실은 다다미로 되어 있어서 아주 널찍하다. 욕조와 세면대와 화장실이 각각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은 아주 내 취향에 딱 맞는다. 벽장에 이불도 여러 채 들어있어서 이게 단체 투어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예약을 한다면 이 객실은 최소한 6명이 숙박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공간이다.

침만 갖다놓고 우리는 목욕 후 입은 유카타로 갈아입고 한 방에 집합하여 녹차를 마시며 환담도 나누고 각각 예쁜 포즈로 기념촬영을 했다. 나중에 여기서 찍은 사진을 보니 선배님들의 모습이 너무 귀엽고 활짝 웃는 모습이 얼마나 밝고 행복한 표정이던지!

둘째 날은 조식 후 버스를 타고 운젠 유황 지옥온천을 향해 출발, 먼저 온천 주변을 산책하고 각각 온천을 즐긴 후 점심식사를 했다. 메뉴는 나가사키 짬뽕. 중국 짬뽕을 상상하면 큰 오산이다. 나가사키 짬뽕은 절대 맵지도 않고 빨갛지도 않다. 맛은 오히려 중국식 울면과 비슷하다. 육수에 돼지고기가 들어있어서 혹시 좀 느끼하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식사 후 후쿠오카로 이동, 중간에 야나가와에 들려 뱃놀이를 했다. 야나가와는 뱃놀이로 유명한 물의 도시로 일본의 베니스라고 불린다고 한다. 수로를 따라 주변의 오래된 버드나무와 전통가옥에서 옛일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이날 햇볕은 너무 뜨겁

고, 그동안 가물어서 강물이 줄어든 탓에 수심은 얇고 수초는 우거져 중간중간 배가 바닥에 닿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 배를 짓는 젊은 뱃사공 청년이 땀을 뻘뻘 흘리며 힘쓰는 모습이 무척 안쓰러웠다. 마침내 배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환호를 지으며 브라보를 외치고 박수를 쳐주었다. 다리 밑을 지날 때면 뱃사공 청년은 듣기 좋은 음성으로 나지막이 일본 노래를 불러주고, 우리는 김삿갓이 쓰고 다닐 법한 밀짚모자를 쓰고 햇볕을 가리기 위해 머플러를 휘둘러 쓴 서로의 모습과 풍경을 사진에 담으며 깔깔 웃어댔다.

후쿠오카로 이동해서 복합 쇼핑몰인 이온몰을 방문했다. 엄청나게 큰 쇼핑몰이어서 이곳 슈퍼마켓에서 각자 사려고 했던 물품들도 구매하고 자유로이 저녁식사의 시간을 가졌다.

후쿠오카에서는 힐튼호텔에서 묵었는데, 후쿠오카 돔(손정의가 구단주로 있다는 야구팀의 전용 구장)과 바다가 바로 보이는 멋진 방이었다. 29층이어서 전망이 기가 막히다. 가이드가 말하길 20층 이상의 방에 묵기는 우리가 처음이라. 우린 여간 운이 좋은 게 아니다. 기왕에 특급 호텔에 묵는 김에, 로비에서 맛이 그렇게도 좋다는 에비스 나마비루(생맥주)를 먹으며 여행의 분위기를 만끽했다.

셋째 날, 조식 후 하타카타위를 갔다. 후쿠오카 시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는 곳이다. 전망대는 힐튼호텔에서의 야경을 만끽한 우리에게 좀 시시하게도 보인 곳이다. 다음 관광지는 다자이후 텐만궁. 텐만궁은 공부의 신이라는 스가와라 미치자네를 모시고 있는 신사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곳인데 시험 합격, 사업 번창을 기원하는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꼭 찾는 곳이라고 한다.

점심식사로 신사 옆 중국음식점에서 뽕토를 먹고 공항으로 가,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도 역시 기내식을 준다. 올 때 받은 것과 똑같은 모양의 종이 도시락에 싸인 밥, 아마도 후쿠오카, 인천을 오가는 기내식은 이것으로 통일된 모양이다. 방금 점심을 배부르게 먹은 후라, 나는 평소 지니고 다니는 비닐봉지에 도시락을 통째로 곱게 싸서 집으로 들고 갔다...

나들이를 마치고마자 여행자 카톡을 따로 만들어 그곳에서 찍은 사진들을 올리니 며칠 동안은 쉴 새 없이 울리는 카톡 소리가 또 어떤 추억을 되새기게 해줄까 싶어 기대감에 설레도록 만든다. 사진을 통해본 초록회 회원 개개인 모두 어찌 이렇게 고운지...

무엇보다 이런 즐거운 여행을 추진해준 조일수, 여행 내내 총무 일을 맡아 수고한 최화숙·남궁미 수고 많았고, 서로서로 배려하며 마음 써주고 예쁜 사진을 찍어주신 선후배님들 모두 고맙고, 특별히 다치는 사람도 없고 아픈 사람 없이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어서 감사하다.

글 / 초록회 총무 안주희 (전 MBC)

고맙습니다 **클럽 발전 기금 내 주신 분** 9월 10일까지 입금순

황우겸(전 KBS) 50만 원	전영주(전 KBS) 50만 원	조길재(전 KBS) 50만 원	이지연(전 CBS) 50만 원	이정애(전 TBC) 15만 원 책구입	박용찬(전 MBC) 1,000달러	위진록(전 KBS) 20만 원	홍우창(전 TBC) 50만 원	임국희(전 MBC) 100만 원
----------------------------	----------------------------	----------------------------	----------------------------	--------------------------------	------------------------------	----------------------------	----------------------------	-----------------------------

축하합니다

서현진(전 MBC) 11월 25일 이비인후과 의사와 혼인	전중환·문지애(전 MBC) 8월 22일 득남
김경희(KBS충주) 8월 19일 장녀 최나예 양 혼인	고새롬(KBS제주) 7월 22일 혼인
심인보·박소영(KBS창원) 6월 24일 득녀	

조의를 표합니다

이성배(MBC) 9월 2일 부친상	조일수(전 MBC) 8월 30일 시모상	송정애(CBS) 8월 17일 시부상
이형균(전 MBC) 7월 31일 모친상	이승현(춘천MBC) 7월 21일 모친상	김은영(CBS) 7월 15일 시부상
이병혜(전 KBS) 7월 5일 부친상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영** 8월 12일 MBC 퇴사